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미륵부처님 출현

1. 불교(佛敎)의 목적(目的)

(1)무명(無明):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허덕이다 죽어가는 참상의 근본 원인은 무명(無明)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무명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병의 원인을 모르고 병을 고칠 수 없듯이 무명의 정체를 모르고는 태초의 청정한 부처님 마음을 찾기(성불)란 불가능하다.

(2) 번뇌(煩惱)

탐욕(貪慾)·진에(瞋恚)·우치(愚癡)를 의미한다. 줄여서 탐·진·치라고도 하며, 이 세 가지 번뇌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三毒)이라고 한다.

(3) 해탈(解脫):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으로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번뇌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이는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實相)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서 가능하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열반(涅槃)이라고 하는바, 결국 해탈은 열반을 동적(動的)으로 표현한 것이고, 열반은 해탈의 정적(靜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지 자체로 볼 때 해탈과 열반은 같은 것의 서로 다른 표현이다.

(4) 열반(涅槃)

1) 유여열반(有餘涅槃):

①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 있는 상태. 아라한(阿羅漢)의 열반.

②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육신(고통)이 남아 있는 상태.

2) 무여열반(無餘涅槃): 번뇌(煩惱)를 끊고 분별(分別)의 지(智)를 떠나 육신(肉身)까지 없애어 정적(靜寂)에 돌아간 경지. 곧 육신을 벗어버린 열반. 오직 미륵부처님만이 무여열반에 들게 된다.

2. 미륵부처님 오시는 때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하여 하나같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증일아함경과 법화경 열반경 그리고 미륵경에서도 미래불(未來佛)이며 법신불(法身佛)로서 오실 부처님을 미륵보살이 불도를 이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체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불교의 예언서라고 하는 화엄경(華嚴經)을 보면 석가모니가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부처님이 석가모니 입멸 후 3007년 되는 때에 이 세상에 불도를 이루시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화엄경의 내용을 살펴 보자.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제 39-11
三千年前 放大光明 名三世明燈
삼천년전 방대광명 명삼세명등
若有衆生 遇斯光者 悉能現見
약유중생 우사광자 실능현견
一切如來 諸本事海 知三千年後 佛當出現
일체여래 제본사해 지삼천년후 불당출현

삼천 년 전에 크게 밝은 빛을 내니 삼세를 밝히는 등불이라 하는데 만약 중생들이 이 빛을 본다면 모든 여래의 본래 바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모두 다 볼 것이니 삼천 년이 지나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나타나심을 알 것이니라.

1) 서기 1980년 북방불기 3007년에 오셨다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선지식(善知識)인 미륵부처님(彌勒佛)을 찾아 수행의 길을 떠난 가운데 보구중생묘덕야신(普救衆生妙德夜神)을 만나 미래에 부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가르침을 듣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제 39-11
知七日後 佛當出現 滿七日已
지칠일후 불당출현 만칠일이
一切世界 悉皆震動 純淨無染
일체세계 실개진동 순정무염
念念普現 十方一切 淸淨佛刹
염염보현 십방일체 청정불찰
亦現彼刹 種種莊嚴 若有衆生
역현피찰 종종장엄 약유중생
根性淳熱 應見佛者 咸詣道場
근성순열 응견불자 함예도량

7일 후에 부처님께서 나시는 것을 알라. 7일이 찬 후에 모든 세계가 다 진동하며 더러움에 물든 것이 없는 순수한 깨끗함이 생각 생각마다 시방의 모든 맑고 깨끗한 절과 같이 나타나며, 또한 저 절과 같이 가지가지 장엄함을 보이느니, 만약에 중생의 성품이 순박하고 따뜻함이 있다면 반드시 부처님을 보러 다 도량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내용의 글을 보면 3000년이 지나고 7일 뒤에 즉 3000년 7일 후에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심성이 깨끗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을 뵈러 반드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 온다는 뜻이다.

화엄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7일이 하루하루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날짜와 달이 실제 의미와는 모두 상관없이 하루도 1년, 한 달도 1년, 1년도 1년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화엄경의 79권을 보면 석가모니는 용궁 이야기를 비유로 하면서 선재동자의 예도 이와 같이 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

위 사진 설명: 천여 년 전에 세워진 충남 논산 천호산(天護山) 기슭의 개태사(開泰寺) 입구에 세워진 소개 간판의 불기를 보면 불기 3007년 경신년 8월 28일 상량(佛紀三千七年 庚申年 八月二十八日上樑)이라고 북방불기로서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불기 3007년, 즉 서기1980년에 중창불사를 하여 상량을 하였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제 39-20
譬如有人爲龍所持 自謂是龍
비여유인위용소지 자위시룡
入於龍宮於少時間 自謂已經 日月年載
입어용궁어소시간 자위이경 일월년재
善財童子 亦復如是 以住菩薩 智慧想故
선재동자 역부여시 이주보살 지혜상고
彌勒菩薩 所加持故 於少時間 謂無量劫
미륵보살 소가지고 어소시간 위무량겁

비유하면 용을 가진 자가 있다면 스스로 용이라고 하듯이 용궁에 들어가서 잠깐 시간을 있더라도 지나간 날과 월은 년으로 기재하고 선재동자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살의 지혜의 마음이 미륵보살이 가진 것과 같으므로 잠깐의 시간도 한량없는 겁을 지낸다 하느니라.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석가모니는 미래의 법신불인 미륵부처님께서 석가모니 입멸 후 3007년에 오신다고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면서도 비밀스럽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3007년은 언제일까요?

석가모니 입멸 후 3007년이니까 불기 3007년을 말하는데 이를 찾기는 무척 쉽다. 즉 우리나라의 큰 사찰에 가보면 절집의 초석에 분명하게 불기 3000년 이상으로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이르러 왈 북방 불기(北方佛紀)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지만 능엄경이나 여러 큰 스님들이 수계한 수계증서 사본에도 분명하게 북방 불기의 사용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북방 불기의 흔적이 현재에도 많이 남아있는데 운허스님 판 동국 역경원 불교 사전의 서문에도 북방 불기의 표시가 보이고 있다. 즉 "불기 2988년 2월에 퇴경 상로"라고 적혀 있으며 "단기 4294년 3월 1일 석청담"이라고 서문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서기로 맞추어 보면 1961년도를 말하며, 북방불기 2988년이 서기 1961년이니까 이를 환산하면 북방불기 3007년은 서기 1980년이 된다. 정확하게 서기 1980년 10월 15일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2) 삼천년 만에 핀 우담화(優曇華)

사찰마다 피어나고 있는 우담화, 그 꽃은 지금 3천 년 만에 피어 모든 불자들에게 자기가 핀 의미를 말해주고 있건만 석존을 따른다고 하는 불제자들까지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도솔천에 계시는 석존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러나 불심 깊은 스님은 "우담화가 피는 것은 필히 사연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담화는 석존 열반 후 삼천 년 후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의 상징의 꽃이다. 즉, 미륵부처님의 출현을 알리는 상징의 꽃이다. 그래서 우담화가 전국 곳곳 사찰마다 피고, 가정에도, 쇼핑센타에도, 화단에도, 심지어는 창문이나 자전거, 차량에도 피어나고 있다.

우담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미륵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빨리 미륵부처님을 찾아오십시오"하고 말이다. 그러나 불자들은 이러한 사연을 모르고 불상에서 꽃이 핀 것을 신기하게만 여기고 우담화의 말하는 뜻을 외면하고 있으니 우담화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담화가 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미륵부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석존께서 말씀하신 미륵부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출현장소

將來之世 有佛名彌勒 出現於世
장래지세 유불명미륵 출현어세
爾時國界名 鷄頭王所治處
이시국계명 계두왕소치처

(해설)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인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신다했으니 계두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신라 탈해왕(脫解王)이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림(始林)숲 속에서 닭이 울기에 이상히 여겨 찾아가 보니 거기에 큰 금궤짝이 나무에 걸려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금궤짝을 열어보니 안에 옥동자가 있어 그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다. 이를 기념하여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이라 바꿔 부르고 나라이름도 계림으로 불렀다고 한다.(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러므로 계두왕이란 계림국의 우두머리되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림국의 역대왕들은 모두가 계두왕이다. 그러므로 계림국이 후에 신라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미륵부처님은 한국에서 출현하신다. 오늘날 우담화가 한국 땅 전국 곳곳에 연이어 피어남은 석존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 미륵부처님의 성함

天曺錄 人間善惡勞心 報應
천조록 인간 선악노심 보응
.....(미륵하생경)
曺還陽眞人 始知天仙 金丹大道.
조환양진인 시지천선 금단대도
.....(선불가 진수어록)
赦罪天曺 救衆生.....(미륵진경)
사죄천조 구중생
하늘의 사람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彌勒道樹下座用 四月八日 明星出時 得佛道
미륵도수하좌용 사월 팔일 명성출시 득불도
.....(불설미륵내시경)
미륵불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 불도를 얻는다.

(해설)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인간 몸으로 태어나심을 예언한 경전인 '미륵하생경과 미륵진경' 속에 "하늘의 조씨가 중생들의 죄를 사한다"고 했으니 미륵부처님은 조(曺)씨 성으로 나오신다는 뜻이며 "명성(明星)이 나올 때 불도를 얻는다" 했으니, '명성' 즉 '밝은 별'이라는 뜻을 가진 성함을 가지고 태어나심을 예언한 것이다.

5. 증표

대반열반경 5권 여래성품 4-2
是處無死 即是甘露 是甘露者
시처무사 즉시감로 시감로자
即眞解脫 如來成就 如是功德
즉진해탈 여래성취 여시공덕

이곳에는 죽음이 없으니 곧 이것이 감로다. 이 감로가 참 해탈이며 (미륵)여래는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했느니라.

(해설) 석가세존께서 생시에 감로를 내놓지 못하고 입멸하려 하자 제자들이 몰려와 왜 감로의 정도를 보여주지 않고 입멸하시려 하느냐고 울며 애원하는 장면이 대반열반경 2권 수명품 23쪽, 고려열반 2권 16쪽, 신수열반 2권 376쪽에 나온다.*

출처: https://youtu.be/ZqWwZsE80yE

彌勒佛出世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23〉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23〉

지혜 있고 죄없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 극락(極樂) - 3

그러므로 이 미륵부처님은 당연히 조씨 성을 가지신 분으로 밝은 빛을 내는 별을 뜻하는 희성(熙星)이라고 하는 '빛나는 별'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보시고 읽으신 바로 그분 조희성(曺熙星)님께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온 그분, 바로 미륵부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륵부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분명하고 올바른 법을 펴시는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므로 비방하고 비웃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 전주시 고덕산 상공에서 촬영(2021.07.23)된 UFO와 같은 모습으로 비행하는 감로광명

그래서 세간에서는 "사이비(似而非)다, 이단(異端)이다!" 하면서 엄청난 억울함과 모진 수모(受侮)를 받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엄청나고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에 한 분, 두 분 모인 불제자님들이 벌써 수천을 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죽기 좋아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오래 살기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뭐다뭐다 등등 하면서 여러분께서 믿으시는 종교가 지금까지 바른 법을 폈다면 수천 년 동안 억조창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6,000년의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은 지금 현재 어떨까요?

[예] 묘법연화경 1권 방편품(方便品) 제 2

以五濁惡世 但樂着諸欲
이오탁악세 단락착제욕
如是等衆生 終不求佛道
여시등중생 종불구불도
當來世惡人 聞佛說一乘
당래세악인 문불설일승
迷惑不信受 破法墮惡道
미혹불신수 파법타악도

오탁악세(현세상)에 사람들은 욕심에 집착하고 즐거움만 찾는데 이같은 중생은 끝내 불도(佛道)를 구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께서 일승(一乘)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미혹하여, 믿지도 아니하므로 법을 깨트리고 악도에 떨어지리라.

해설 : 석존께서는 3000여 년전에 불법을 펴시면서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삶(生老病死)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법을 펴신다고 하며 지금의 불교가 창시되게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삼승법(三乘法)이 진실한 법이 아니므로 3000년 뒤에나 미륵부처님이 인간들에게 오셔서 올바른 대승의 일승법인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 할수 있다는 불사설(不死說)을 말씀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에 물이 들고 석존께서 말씀한 생로병사의 삼승법이 진실한 법인줄 알고 착각하여 올바른 법을 깰 것을 벌써 아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주의를 주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갖은 누명과 말로 할 수 없는 중상모략으로 법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대가리 굴리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의 정치도구와 기득권을 이용해 올바른 대승의 일승법인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 할수 있다는 불사설(不死說)을 말씀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에 물이 들고 석존께서 말씀한 생로병사의 삼승법이 진실한 법인줄 알고 착각하여 올바른 법을 깰 것을 벌써 아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주의를 주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갖은 누명과 말로 할 수 없는 중상모략으로 법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승자박(自繩自縛)당해 스스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의 시간에 영주합니다.* 明鍾